

여수시, 섬박람회 지정음식업소 지정서 수여식 개최

5월 1일부터 카드 사용 가능...상품권 순차 적용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4월 30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정음식업소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정현구 부시장을 비롯해 지정음식업소 영업주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전달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108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07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215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지정업소는 위생 상태와 친절, 시설 환경, 메뉴 구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지정업소들은 섬박람회 기간 국내외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수의 음식문화와 관광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는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시 누리

집과 '여수엔'을 통한 홍보를 지원하고, 위생용품과 지정 현관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 모두가 여수의 맛과 정을 느끼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지정음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친절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기본적인 외국어 응대 교육과 메뉴판 다국어 표기 개선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식재료 사용을 확대해 여수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강화하고, 계절별·테마별 추천 메뉴를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

로서 음식의 가치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는 또 지정업소 간 자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영업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찾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음식점 안내, 온라인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객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은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만큼 지정업소가 여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와 관광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지정음식업소 지정서 수여식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아동학대 예방 '나쁜 말 세탁소' 문 열어

순천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유관 기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본격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1일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 행사장을 찾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캠페인은 순천시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해 촘촘한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눈길을 끈 '나쁜 말 세탁소'는 부모가 평소 무심코 했던 "빨리 안 오면 두고 간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와 같은 상처 주는 말을 메모지에 적어 직접 파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부적절한 훈육 방식과 차별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퍼포먼스는 부모들이 스스로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감사와 사랑의 달 맞아 5월 정례조회 개최

광양시는 최근 시청 시민홀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조회는 시청 발전 유공 직원 7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광양시장 권한대행 김정완 부시장의 당부사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 권한대행은 4월 주요 성과로 ▲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및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종합 3위 달성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 달성 등을 언급하며 선수단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1차 지급이 진행된 만큼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2차 지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시 출범에 대응한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핵심사업 건의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과 연계된 주요 현안인 만큼 부서별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을 끝까지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6월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현장과 도로변 상습 침수지역, 붕괴 위험지구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우수 피해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동화정원 초록 밀밭위에 울려 퍼진 봄의 멜로디

전남 곡성군은 최근 섬진강동화정원에서 열린 '봄의 멜로디, 동화정원 음악회'가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봄철 동화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음악과 체험이 어우러진 특별한 정원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빛 밀밭을 배경으로 감미로운 음악 공연이 펼쳐졌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인, 친구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행사장에서는 카네이션 화분 만들기, 장미 아크릴 도아벨 만들기, 키보드 꾸미기, 격정이 인형 만들기 등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진행돼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특별한 그림으로 남길 수 있는 캐리커처 체험, 곡성 장미의 이미지를 담은 로즈커피 시음,

방문 인증을 유도하는 SNS 이벤트 등도 함께 운영돼 관광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행사 둘째 날인 3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동화정원을 찾았다. 비에 젖은 초록 밀밭과 정원 풍경은 운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관광객들은 우산을 쓰고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색다른 봄 정원의 정취를 만끽했다.

동화정원은 지난해 가을 황화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며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탄 곡성의 대표 정원 관광지다. 현재는 푸른 밀밭이 싱그러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레국화와 안개꽃 등이 차례로 피어나며 더욱 다채로운 봄꽃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 비료값 상승 적극 대응...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 추진

전남 구례군은 중등 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학적인 시비 관리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건강한 토양 환경까지 함께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에 기반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및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처방서를 활용하면 작물에 필요한 비료량을 정확히 알 수 있어, 농가는 불필요한 비료 사용을 줄이고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기술지원단'운영을 통해 영농 밀착 지도에 나선다. 지원

단은 ▲비료사용처방서 활용법 ▲작목별 양분 관리 요령 ▲비료 대체 자원 활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돕는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자재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과학적인 농업 경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적정시비 실천으로 경영비를 아끼고 구례의 청정 농업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주요 작목별 맞춤형 시비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교육과 상담도 확대해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과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심선성 기자